



고려시대, 이 시기 문학은 한문학의 전성기이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대, 당시의 충북 대표 문인으로
시조문학의 효시인 우탁이 있다.

이후 조선시대, 이 시기 문학은 국문학의 형성기이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진정한 의미의 국문학이 형성되어진 시기로
당시의 충북 대표 문인으로 현실 초월적인 삶의 대학자, 옥소 권섭과
17세기 최고의 문인 김득신이 있다.

국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대시인이자 탐험가, 권섭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성리학의 도도한 사상과 물결 속에서 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사고 속에 현실 초월적인 삶의 대학자

조선시대 현종 ~ 영조시대의 옥소 권섭 선생은 제천의 자랑스런 인물.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 고산 윤선도와 어깨를 건줄 만한 인물로 1974년에 국문학 박사 박요순 교수에 의해 소중한 자료가 발굴되어 알려지게 되었으며 제천을 빛낸 조선시대 후기의 인물이다.



01 권섭의 출생과 어린시절

권섭의 본관은 안동, 자는 조원(調元), 호는 옥소(玉所), 천남거사(泉南居士), 백취옹(白趣翁) 또는 무명옹(無名翁)이라 불렸다. 사헌부 집의(執義)를 지낸 육유당(六有堂) 권격(權格)의 손자이며 이조참판에 증직된 아버지 권상명(權尙明)과 좌의정을 지낸 우사(霧沙) 이세백(李世白)의 딸 용인이씨 어머니 사이에서 조선 현종12년(1671) 3월 1일 서울의 삼청동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집안은 학자와 정치인 집안으로 유명했다. 5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부친을 따라 백부인 수암 권상하의 거처인 제친의 청풍 황강(黃江)으로 내려와 훈도를 받기 시작하였다. 호조판서(戶曹判書)였던 하곡(霞谷) 윤계로부터 시를 잘 지었다고 한 번에 수십 자루씩 좋은 붓을 상으로 받기도 하였다.

부친은 과거 초시에 급제한 권상명으로 그의 나이 14세 때 33세로 요절하였다.

아버지와 사별한 뒤 그는 백부 수암 권상하의 슬하에서 20여 년간 당대 성리학의 대가 우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아 8살 때부터 시를 썼다.



02 학문에만 열중한 문장의 대가

19세 때 권섭은 기사한국을 맞아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당쟁의 소용돌이를 뒤로하고 세속에 머물러 학문에만 열중한 문장의 대가이다. 백부인 수암 권상하가 제천의 청풍으로 낙향하면서 서로 떨어지게 되며 주고받은 서찰집인 강상찰(江上札) 15책에서 수암의 슬하에서 옥소가 20년간이나 보살핌을 받은 것이 여실히 보여진다.

이 강상찰(江上札)은 가정사와 사회에서의 예와 의, 윤리기강, 삶의 이치 등의 내용을 총망라한 조선조 후기의 가장 방대한 서간집으로 추측되고 있다. 34세에 제천을 출발하여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여정을 가사로 지은 영삼별곡은 그의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권섭의 작품

강상찰과 영삼별곡

03 학자와 예술가 활동

그는 당시 조선 진경산수의 대가인 겸재 정선과 절친한 사이였으며, 그림에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내용이 다양하고 사실적이며 깊이가 있다. 게다가 폭넓은 대인 관계는 다른 이의 작품에서 보기 드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학을 생활화 했기 때문에 그의 문필 유산 가운데에는 한시·시조·가사 작품 외에도 유행록(遊行錄)·기몽설(記夢說) 등이 있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섬세함을 보여 준다.

시만 해도 방대한 양을 남기고 있어 오늘날 전해진 것만도 한시 3,000여 수, 시조 75수, 가사 2편이 된다.

시조 75수는 연시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그의 창작 자세가 진지했음을 알 수 있다.



04 제천의 천남거사

제자들에 의해 황강영당이 세워졌을 때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를 비롯하여 당시 문장대가로 추앙받던 많은 제자를 제치고 권섭이 그 묘정비문을 짓게 된다. 그의 나이 76세에 쓴 도통가는 백부인 수암을 도학자의 최고봉으로 모시고자 하는 뜻으로 썼다. 그는 1759년 2월 6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 지방으로 많은 이사를 다녔지만, 주로 청풍과 제천, 문경을 오갔으며, 그의 묘소는 유언에 따라 옥소산으로, 생전에 즐겨 찾아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던 구담봉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두 부인과 함께 묻혔다. 제천의 천남거사로 자칭하며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창작 열의는 50여 권의 친필 문집 속에 고스란히 담겨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황강영당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작가연보

- 1671** 안등권씨 화천군파 문중에서 태어나 5세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7세부터 문장을 엮기 시작하여 8세에 동생이 태어나자 제생희(弟生喜)라는 시를 지었으며 10세에 문리에 통달.
- 1685** 14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백부 권상하의 슬하에 머물며 학문에 전념.
- 1687** 16세에 혼인을 하였고 18세에 외조부 이세백의 임지인 경주와, 장인 이세필의 임지인 삭녕지역을 두루 여행.
- 1690** 숙종의 세자 책봉 문제로 송시열이 사사(賜死)되자 소두(疏頭)가 되어 상소를 올리는 한편, 궐문 밖에서 통곡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신고(辛苦)를 겪음.
- 1692** 21세에 재산을 정리하여 2년 후 제천의 문암동에 선산을 정하고 이때부터 제천을 자주 드니듬.
- 1695** 24세에 다시 과거공부를 시작하였으나 곧 체념하였고,
- 1696** 25세에 초취인 이씨부인과 사별.
- 1698** 27세에 조씨 부인을 맞이하였고 곧이어 절친한 친구인 정제문이 살던 북동으로 이사.
- 1705** 34세에 장인 이세필의 임지인 삼척을 찾아가서 동해 일대와 태백산, 소백산을 두루 여행하고 제천에서 영월 삼척까지의 여정을 가사「영삼별곡(寧三別曲)」으로 지음.
- 1713** 42세에 모친상을 당하였고
- 1715** 모친을 제천 문암동의 부친과 합장하고 그곳에서 3년상을 마치고 청풍으로 이사하여 향촌생활을 시작.

작가연보

1718 47세에 충청도 강경의 북촌으로 이거.

1723 52세에 전라도 고산의 옥포 역촌으로 이사.

1724 53세에 신임시화(辛壬士禍)가 일어나 백부 권상하의 관직이 추탈되고,
계부 권상우와 외숙 이의현 등이 삭직 혹은 문외 출송되어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음.

1725 54세에 황강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청풍 황강, 제천 일대와
부실 이씨부인이 살고 있던 문경의 화지동 일대에서 두루 생활하다가 마침내 제천 문암동에 정착

1748 가사인 「도통가(道統歌)」를 지었다.

1759 영조35년 89세를 일기로 말년에 정착한 제천 신촌의 문암동에서 여생을 마치고 단양의 장회리 옥소산에 묻혔다.